

한국의 초기 정신분석학 수용에서 일본의 영향

- 김성희와 고사와 헤이사쿠의 이론적 유사점을 중심으로

이정민*

- 목 차 -

- I. 서론
- II. 고사와 헤이사쿠의 모성론
- III. 김성희와 고사와의 연결점과 분절점
- IV. 동아시아 정신분석의 흐름과 단절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정신분석가 김성희와 그의 스승인 고사와 헤이사쿠의 이론적 유사점을 논함으로써 동아시아 정신분석 수용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김성희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평양의전을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 제국대학으로 유학하여 정신분석을 공부한다. 이때 그에게 영향을 준 이로는 마루이 키요야스와 고사와 헤이사쿠가 있는데, 이중 정신분석 이론을 가르쳐 준 이는 고사와였다. 고사와는 ‘아자세 콤플렉스’라는 동양 특유의 정신분석 이론을 제창한 이였으며 그의 이론은 아버지가 중심이 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달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서양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이후 제자인 김성희에게서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고사와가 보여준 모성애에 대한 강조나 이론을 로컬화하려는 시도는 김성희에게서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비록 현재 한국에서 일본식 정신분석학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

*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지만, 이러한 이론적 단절 또한 동아시아 정신분석 수용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김성희, 고사와 헤이사쿠, 정신분석사, 동아시아 정신분석 수용사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정신분석가 김성희와 그의 스승인 고사와 헤이사쿠(古澤平作)의 이론적 유사성을 되짚어 봄으로써 한국의 초기 정신분석 수용상황을 재구축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김성희는 1917년 6월 24일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으며 1940년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도호쿠 대학(東北大學) 정신병학교 실에 재학한 바 있다. 해방 후에는 1950년까지 평양의대 부속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였으나 한국전쟁기에 월남,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전남의대 정신과학교실에 재직하였다. 도일기에 김성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두 명으로, 마루이 키요야스(丸井清泰)와 “일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오코노기 케이고小此木啓吾의 표현)” 고사와 헤이사쿠(古澤平作)가 그들이다. 마루이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 도호쿠 제국대학 의학전문부 강사를 거쳐 1916년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미국 볼티모어의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에게서 수학하였다. 도미 중에 마루이는 프로이트의 전집을 통독하면서 정신분석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귀국 후 일본신경학회에서 당시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이 학문에 대해 보고했다.¹⁾ 정신분석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프로

1) 岡田靖雄, 「戦前合州國に留學した精神病學者たち(下)」, 『日本医史學雑誌』第40卷 第4号, 1994, 17~19쪽.

이트 저작의 일본어판 전집 번역²⁾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그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제정신분석협회(IPA) 센다이 지부를 창립하고자 하였다. 마루이는 의학계와 심리학-인문학이라는 일본 정신분석사(史)의 두 개 그룹 중 의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동시기 야베 애에키치(矢部八重吉) 등의 심리학 그룹과의 정신분석 정통성 논쟁을 벌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³⁾

기록에 따르면 김성희는 도호쿠 대학 재학시에 부수(1940.4.6.~1943.5.3 1.), 조수(1943.5.31.~1945.1.25.)로 근무하였다고 한다.⁴⁾ 그러나 1940년부터 1943년까지의 『도호쿠대학 일람』의 정신병학교실 직원명단과 재학생 명단에는 김성희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1944년이 되어야 青野熙一(아오노 키이치)라는 조선 출신의 인물이 등장한다.⁵⁾ 이름에 ‘熙’가 들어가 있으며 조선 출신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인물이 김성희라고 추정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940년부터 1943년까지의 행적은 여전히 불명확해진다. 요컨대 부수로 근무했던 이력이 일람에 기재되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김성희는 무엇을 했을까. 김성희는 평양의 전 졸업 시 까지 정신분석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도일 후에야 마루이에게 개인분석을 받고 도쿄의 고사와에게서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했다고 한다.⁶⁾ 그렇다면 이 3년간 김성희는 센다이와 도쿄를 오가며 정신 분석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마루이에게서 교육분석을 받고 임상경험을 쌓았으며 고사와로부터는 정신분석의 지식을 전수받은 셈이다.

고사와에게서 정신분석 이론을 배웠다는 것은 즉 고사와 특유의 일본

2) 마루이는 여러 번 프로이트 번역에 참여했는데, 1930년에는 『日常生活の異常心理(일상생활의 이상심리)』 하권의 번역(아르스판)을, 1941년에는 『日常生活に於ける精神病理(일상생활에서의 정신병리)』(이와나미판)을, 1952년에는 『精神分析學入門(정신분석입문)』 상, 하권(닛폰교분사판)을 번역했다.

3) 기타이마 오사무, 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 역, 『의사들의 편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태학사, 2010, 193~202쪽.

4) 김성희교수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생애와 사상』, 이우, 2004, 25쪽.

5) 東北帝國大學, 『東北帝國大學一覽』, 1944, 305쪽.

6) “마루이 교수에게 개인 정신분석을, 정통 정신분석의 방법으로 3개월간 받았다. 카우치에 누워 자유연상 하는 방식이었다. 1회 60분, 일주에 6회씩 받았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

이무석, 『金性熙教授의生涯과思想』, 『정신분석』 제17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6, 135~136쪽.

식 정신분석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와는 마루이의 제자였지만 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충돌했고, 이후 정통 정신분석학을 배우기 위해 단신으로 비엔나로 가 프로이트와 대면한다. 그러나 국비유학이 아니라 형의 자금지원을 받은 개인유학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지 않았고, 그러한 고사와에게 프로이트는 자신에게서 분석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제자인 리하르트 슈테르바(Richard Sterba)에게서 훈련분석을, 파울 페데른(Paul Federn)에게 감수를 받기를 권장한다.⁷⁾ 고사와는 프로이트의 의견에 따라 그들에게서 교육분석을 받았지만, 프로이트에게 직접 분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다.⁸⁾ 이후 1932년 7월경에 고사와는 자신만의 정신분석 이론인 ‘아쟈세 콤플렉스(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이론을 정리하여 프로이트에게 보낸다. 이 논문의 원래 제목은 「두 종류의 죄의식-아쟈세 콤플렉스(罪惡意識の二種(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전통에서 구상된 것이라 한다면 아쟈세 콤플렉스는 동양, 정확히는 일본 불교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부친 살해의 신화와 그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다루는 것에 비해 아쟈세 콤플렉스는 모친 살해와 모친의 용서(ゆるし)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논문을 받아든 프로이트는 “그 글을 지금 상태 그대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⁹⁾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특징적인 것은 서양의 것과 대비되는 일본인의 정신구조를 이론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후 오코노기 케이고(小此木啓吾)와 도이 다케오(土居健郎)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 정신분석의 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김성희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의 영향이 발견된다.

7) 기타야마 오사무, 앞의 책, 202~204쪽.

8) 中野明徳, 「日本における黎明期の精神分析 一大樹憲二と古澤平作の貢献」, 『福島大學總合教育研究センター紀要』, 2015, 18쪽.

9) 기타야마 오사무, 앞의 책, 205쪽.

II. 고사와 헤이사쿠의 모성론

김성희는 다섯 편의 번역문과 한 편의 논문(『정신분열증 망상의 정신치료와 이해』) 이외에 글을 남기지 않았다.¹⁰⁾ 다만 그의 제자들이 수기로 기록한 강의록이나 대화록이 남아 있다. 『김성희 교수의 생애와 사상』을 비롯한 다섯 권의 책이 그것으로, 주로 60년대에 이루어졌던 강의와 퇴직 이후의 대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고사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가 번역한 프로이트 선집과 1952년 여간에 쓴 다섯 편의 기사 「정신분석의 이해를 위해(精神分析の理解のために)」¹¹⁾, 박사논문 「정신과 리증의 환시에 대해(精神乖離症幻視に就て)」, 학술지 「精神分析研究」에 쓴 몇 편의 짧은 글,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제출했던 「두 종류의 죄의식」¹²⁾이 그것이다. 고사와는 글을 남기는 대신 정신분석 임상과 교육에 힘썼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이로는 오코노기 케이고와 도이 타케오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정신과 의사이며 특히 어머니의 존재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코노기는 그 자신이 아자세 콤플렉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과 동시에 해외에 소개했으며 관련된 임상보고를 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사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리왕의 구조(甘えの構造)』로 잘 알려진 도이는 오코노기와는 다르게 고사와의 분석법(특히 Es의 해석에 있어)에 의견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고사와의 태도를 문제시하고 그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제창한 ‘어

10) 이는 김성희의 제자인 이무석의 증언이다. 그러나 『김성희 교수의 생애와 사상』 제1권에는 세 편의 논문(『정신분열증 망상의 정신치료와 이해』,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정신치료」, 「인간 본성의 비교생물학적 고찰」)이 실려 있는데, 두 번째 논문이 강의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첫 번째 논문의 일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성희가 남긴 ‘글’은 두 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古澤平作, 『精神分析の理解のために』, 日吉病院精神分析學究室出版部, 1958.

12) 다이구지 마코토와 모리구치 마이에 따르면, 이 논문이 최초로 실렸던 것은 1931년 도호쿠대학 의학부의 기관지 『곤료(艮陵)』였으며, 제목도 「정신분석학상에서 본 종교精神分析學上より見たる宗教」였다. 이 논문이 「두 종류의 죄의식」이라는 제목이 되어 다시 게재된 것은 1954년의 『정신분석 연구(精神分析研究)』 제1권 제1호였다. 이 논문은 오기(誤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大宮司信·森口眞衣, 「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という名称に關する一考察」, 『精神神經學雜誌』 제110권 제10호, 2008, 870~871쪽.

리광 이론'이 고사와에게서 볼 수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도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¹³⁾ 어찌 되었든, 남아있는 글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고사와가 남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론체계는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성희는 도일 이전에 정신분석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도일 이후 마루이 키요야스에게서 교육분석을 받음과 동시에 고사와 헤이사쿠의 정신분석 클리닉에 이론을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했던 1940-1943년 어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정신분석 클리닉에서 김성희를 비롯한 수련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당대에 정신분석학이 나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고사와의 클리닉도 전시에 계속해서 임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어찌면 이상하다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코노기가 밝히고 있듯이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정신분석학을 위험한 유대 사상으로 여기던 나치 독일의 동맹이 됨으로써 고사와는 일본 특별경찰의 감시하에 들어갔다”¹⁴⁾는 점에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빈곤함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스승인 마루이의 작업과 그 자신이 번역한 프로이트의 저서 『정신분석 요법(精神分析療法)』, 『속 정신분석입문(續精神分析入門)』, 제자인 오코노기 케이고의 증언, 고사와에게서 분석을 받은 마에다 시게하루(前田重治)의 경험, 김성희가 강의 중에 언급한 고사와의 프로이트 번역본(이는 앞서 언급한 『정신분석요법』의 「정신분석요법의 길(精神分析療法の道)」을 축약 번역한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도쿄 정신분석연구소의 기관지 『정신분석(精神分析)』의 광고 등을 통해 교육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논했듯이 고사와는 마루이의 정신분석 기법이 정통적이지 않다고

13) 中野明徳, 앞의 논문, 19쪽.

14) Okonogi, Keigo, *Japanese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The Japan Psychoanalytic Society, 2004, p.12.

생각하여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자유연상기법을 체험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자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고사와가 정통 정신분석을 배우기 위해 간 오스트리아에서 발견한 것이 ‘일본인’이라는 주체였다는 것이다. ‘일본인’이라는 내셔널리티 혹은 국민국가의 주체는 다분히 억압적인 하나의 호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사와의 문제의식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정신분석 이론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서양이라는 인식론적 틀과 전형적인 가부장적 구조, 무엇보다 유일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편 고사와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가족은 프로이트의 전제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서양의 가부장제는 일본의 가부장제로 간단하게 치환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전통과 관습 또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고사와에게 이러한 생각을 품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그 자신이 불교신자였다는 점이다.¹⁵⁾ 따라서 고사와가 프로이트를 숭상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고사와 정신분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한다. 이에 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고사와에게서 교육분석을 받은 마에다의 경험¹⁶⁾에 대한 나카노의 논평이다.

고사와는 초기부터 깊은 내용해석(Es 해석)이 많았으며, 상당히 상징적인 해석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중략) (고사와는) 일본인을 정신분석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신화와 전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사와가 상징적인 해석을 자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Es를 분석하려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나카노는 이것이 멜라니 클라인의 영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가 정신분석학을 일본화하려고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

15) Harding, Christopher, “Japanese psychoanalysis and Buddhism: the making of a relationship”, *History of Psychiatry*, 25(2), 2014, p.160.

16) 中野明徳, 앞의 논문, 18~19쪽.

요가 있다. 앞선 마에다의 분석경험에서도 여성공포에 대한 저항이 언급되자마자 일본식 정신분석 이론인 아쟈세 콤플렉스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고사와가 기법적으로는 프로이트식의 자유연상법에 충실하려 했다는 것은 나카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라는 중핵을 다룰 때에는 그 자리에 ‘일본인’을 위치시키고 일개 민족에 최적화된 정신분석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겠다. 고사와의 이러한 태도는 정신분석학 이론이 범민족·범언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여실히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사와가 주목한 일본인의 정신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서양의 학문인 정신분석학과 일본인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을까. 그의 제자 오코노기 케이고는 『일본인의 아쟈세 콤플렉스(日本人の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에서 다음¹⁷⁾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전부터 일본의 가정을 떠받치며 나아가 일본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어리광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라 논해져 왔다.

이는 프로이트가 『토텁과 타부』에서 아버지 콤플렉스를 논하면서 말한 “후회의 감정(Reue)”, “죄의식(Schuldgefühl)”, “아버지와의 계약(ein Vertrag mit dem Vater)”¹⁸⁾과 같은 서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프로이트의 맥락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들이 후회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후 아버지의 대용물을 찾아 엄격한 계약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를 해소하려 한다. 이에 비해 고사와가 인식하던 일본의 가정이란 “나쁜 짓을 한 나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부모(잘못을 한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 것을 부드럽게 충고하는 부모)”¹⁹⁾가 있는 것이었다. 규칙과 처벌이 전제된 프로이트

17) 小此木啓吾, 『日本人の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中央公論新社, 1982. 13쪽.

18) 독일어판은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chronologisch geordnet* Bd.9 . Imago Publishing, 1952. p.174. 한국어판은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14, 219쪽.

19) 古澤平作, 『罪惡意識の二種』, 『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創元社, 76쪽.

의 개념과는 달리, 여기서 논해지는 일본의 가정은 계도와 용서를 행하며 그로 인해 아이가 부모(모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이 서양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본의 사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 고사와 이론체계의 출발점이었으며, 한편으로 프로이트가 이 논문을 심드렁하게 바라보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되돌아보자면 고사와의 개념이 단편적이고 환원적이며 또한 내셔널리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다만 프로이트를 깊이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서 성장한 자신에게 있어 그의 이론이 생경하게 느껴졌기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던 고사와의 문제의식은 그 나름대로 정당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일본인’이라는 개념과 정신분석학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오코노기는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다음과²⁰⁾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가정, 직장에서의 친자관계와 대인관계의 트러블 대다수가 실제로는 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 관념 속에서는 구미풀으로 하려는 모순이 생긴다. 그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본적 인간관계의 감각이나 자기감각을 타고났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해 버리고 말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식과 존재, 관념과 현실의 괴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대 일본인 공통의 괴로움이다. 이 모순을 깨닫고 일본적인 자신과 다시금 만나는 것이 자기해방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해방은 현재 어느 세대, 어느 계층에게나 시급한 정신적 과제이다.

아마 세 콤플렉스는 일본인과 서구인의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핵심 전제로 한다. 서구인들은 서구인들 나름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부성원리 父性原理”)이 있고, 일본인에게는 일본인 나름의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20) 小此木啓吾, 앞의 책, 5~6쪽.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 일본인에게 들어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써 억누르려 해 왔고, 결국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적인 자신과 다시금 만나”야 한다. 상당히 내셔널리즘적인 관점이기에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지만 한편으로 아자세 콤플렉스와 일본식 정신분석학이 왜 “시급”하게 요구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코노기는 아자세 콤플렉스 또한 하나의 “규제원리”²¹⁾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이 수반되는 규제가 아니라 상호 용서를 통해 일체감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프로이트 식의 콤플렉스 개념, 그리고 그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죄의식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프로이트의 죄의식 개념이 아버지와의 투쟁과 살해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고사와(오코노기)의 죄의식 개념은 죄를 저지른 자신이 부모에게 용서받음으로써 그에 감화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두 이론이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고사와가 생각하기에 프로이트와 자신의 관점은 대조적일 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고사와가 『두 종류의 죄의식』의 서두에서 프로이트의 토테미즘론을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에 굽힘이 없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콤플렉스 이론은 병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고사와가 생각하기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론을 ‘일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서양적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학의 로컬화(Lokalisierung)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요컨대 기법을 취하되, 일본의 실정에 맞게 변주한 후 임상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고사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다른 ‘아자세 콤플렉스’를 제창하면서 어머니와 ‘용서’에 중점을 둔 것, 정신분석학에 ‘일본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주체와 기법을 분리했다는 것,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을 나름대로 손보고 로컬

21) 小此木啓吾, 앞의 책, 24쪽.

화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김성희에게도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김성희는 그 강의록 내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 어머니란 자식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허물을 감싸는, 어쩌면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였다. 또 김성희가 “부모”를 말할 때 그 말의 의미에서 프로이트식의 아버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며, 대부분의 국면에서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가리키기 위해 부모라는 이름을 호출하였다. 또, 김성희는 고사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는 주체를 강조했으며 나아가 한국인에게 맞는 정신과 임상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김성희에게 미친 고사와 해이사쿠의 이론적 영향을 다음의 장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III. 김성희와 고사와의 연결점과 분절점

김성희의 강의 중에서는 모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모성은 헌신적이고 아가페적인 것이며 아이는 이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은 이후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란 대상이 어렸을 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날 때면 기쁘고 행복하다. 커서 어머니 얼굴과 같은 세계가 펼쳐질 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의 얼굴이 불쾌하고 품 안이 고통스러웠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같은 대상이 나타날 때면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열등감이 나온다. 그런 세계 자체가 괴롭고 불쾌하다.(1968년 11월 15일 강의, 김영현 기록)²²⁾

물론 프로이트도 모자관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모

22) 앞의 책, 289쪽.

자관계론이 발달단계에서의 성충동(Sexualtrieb)²³⁾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²⁴⁾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반면에(“부모와 아동 간에 이루어지는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리비도적 갈등 문제”²⁵⁾) 김성희의 강의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성충동은 거의 지적되지 않는다. 오히려 김성희의 논의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자관계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김성희는 강의 중에 클라인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으며,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3』 권말에 실린 보유장서 목록²⁶⁾에도 클라인의 저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나 프로이트의 저서는 몇 권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에 남은 분석 경향을 보면 안나 프로이트류의 아동정신분석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면 김성희의 모성관은 그 누구의 이론보다 고사와의 이론과 맞닿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성희의 언설이 클라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스승인 고사와부터 클라인과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다만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고사와가 인간의 본질을 불교라는 종교에서 찾고자 했다면, 김성희는 인간의 본질을 동물의 단계에서 찾으려고 했다. 김성희는 누차 동물 또한 모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인간이 가지는(가져야 하는)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고사와와의 이론적 입장이 같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며, 나아가 그가 민족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고 한국인을 위한 정신분석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 할 수 있겠다. 김성희는 이무석과의 대화 중에 마루이와의 분석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²⁸⁾과 같이 논한다.

마루이 교수가 어릴 때 생모를 잃었으니까 생모의 정이 의식되지 않

23) Sigmund Freud, 김정일 역, 『성욕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12, 124~127쪽.

24)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371~372쪽.

25) 이병우, 「프로이트의 對象關係와 對人關係」, 『정신분석』 제18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7, 39쪽.

26)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3』, 이유, 2007, 229~270쪽.

27) 中野明徳, 17쪽.

28)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와의 대화 2』, 이유, 2007, 234쪽.

은 데에 살아 있거든. 성장했을 때는 거기에 지적인 판단을 가미하겠지만, 어렸을 때 생모를 잊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모정을 경험할 수가 없지. (중략) 그런데 내가 분석시간에 free association을 하면서 그런 것(어머니의 정에 대한 경험)을 말할 때, 마루이 교수는 내 심경을 통해서 곧 자기의 심경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던 말이지. (중략) 그러니까 그 때 자기는 종교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렸을 때 자기 생모를 잊을 때 잊었던 것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지. 마루이 교수도 그것을 일부러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이 곧 이해가 되었던 말이지.

위의 대화에서 김성희는 종교보다 심층심리에 “어머니의 정”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²⁹⁾ 즉, 고사와가 인간의 본질과 종교를 같은 위상에 두려 했다면, 김성희는 “모정”이 보다 근본적인 곳에 있다고 논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성이란 동물적인 차원(즉 본능instinct)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다.³⁰⁾

김성희는 마루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부권사회이며 따라서 어머니의 정을 “나약하다”³¹⁾ 여기기에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보았다. 이는 어찌 보면 김성희가 고사와의 일본인 모성론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김성희의 이러한 관점에는 피식민지인의 관점이 녹아들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강의와 대화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성희는 그 자신이 상당한 민족주의자였으며, 식민지 시기에 한민족이 일본인들에게 큰 억압을 받았음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던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스승의 관점과는 달리 일본을 “모자 관계는 무시하고 부자 관계를 중요

29) 김성희는 다른 곳에서 “어머니와 아이 관계는 인간의 근본 토대며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1』, 이유, 2007, 154쪽.

30) 다만 김성희는 서양인의 모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서구에서는 모성애보다 신의 사랑이 더욱 절대적”이라 논한다. 이는 문화차이를 지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이트 식의 서양 정신분석 이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와의 대화 1』, 이유, 2007, 160쪽.

31) 앞의 책, 234~236쪽.

시”³²⁾하는 사회라 생각했으리라 판단된다. 덧붙이자면, 흥미롭게도 김성희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다음³³⁾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주 사용된다.

망상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애비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다. 애비는 권위도 있고 옳다. 너는 자식으로서 애비 말이 옳다고 해라”하고 주장했다. 자식과 애비가 서로 옳다고 하다가 결론이 없으니까 병원에 왔다. 권위적이다. “나는 권위 있는 정신과의사다. 내가 정상이라고 해야 너는 정상으로 인정받는다. (중략) 너는 망상을 가진 미친놈이니까 내가 너를 가두고, 주사 놓고, 전기 치료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망상은 해결이 안된다. (1976년 2월 7일 강의, 이무석 기록)

김성희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권위”적 존재이며, 그의 “권위”있는 행동은 오히려 치료를 실패로 만든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으로 지시와 이행, 그리고 불이행시의 처벌이 있을 뿐 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반대로 그의 모자관계론은 쌍방향적인 것으로, 어머니와 자식은 정(情)을 통해 서로 교통한다. 김성희 또한 어떤 면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아버지와 그릇된 태도의 의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³⁴⁾ 그 반대라면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의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김성희는 정신과 의사가 어머니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사와의 입장과도 일정 정도 일치한다. 고사와가 의사=어머니=구원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성희 또한 의사=어머니=구원자³⁵⁾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2) 앞의 책, 236쪽.

33)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2』, 이유, 2007, 178쪽.

34) 그가 호출하는 ‘아버지’는 통상 부정적인 맥락에서 등장했다. 특히 한 강연에서는 “모계사회를 수컷이 지배하려 할 때 잔인성이 나왔다”고 단언한다.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생애와 사상』, 이유, 2007, 278쪽.

35)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1』, 이유, 2007, 140쪽.

한편 고사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한 인물이었다. 고사와가 독일에 있을 때 그의 분석을 담당했던 리하르트 슈테르바는 그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그의 스승이었던 마루이와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³⁶⁾ 고사와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생각했던 스승 마루이에게 격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고 아자세 콤플렉스 이론의 제창으로 나아갔던 것이다.³⁷⁾ 반면 김성희는 그의 스승인 마루이, 고사와와 각별한 관계였다. 강한 민족의식을 가졌던 김성희는 마루이에게 조선인의 급여차별 문제 등으로 몇 차례 반발하기도 했지만 은사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성희는 한국을 “모계 사회”³⁹⁾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제국의 스승에게서 배운 부계사회식의 정신분석학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한편 한국인 나름의 정신분석을 창안하려 노력했고 후학들에게도 강조했다. 이는 정신분석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균원적인 문제의식을 발현시킨 것이었다. 여기에는 피식민자로서의 경험과 자의식, 북한 출신자로서의 퍼스널리티,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던 시대에 개방병동(Open Ward)을 추진하면서 받은 비난들, 민족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외국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매우 혐오하였으며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풍속이나 행위나 의식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Abnormal)인 것이다. (중략) 특히 정신과의사들까지 덩달아 이것이 맞다고 맞장구치고 나와서 조장하여 놓으면 가치가 전도되어 이제는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모르게 된다.(1964년 9월 21일 강의, 강진상 기록)⁴⁰⁾

36) Harding, Christopher, 앞의 논문, p.160.

37) 平山朝治, 「母性社會論の脱構築」,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紀要』, 2002, 128쪽.

38)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와의 대화 2』, 이유, 2007, 158~159쪽.

39) 앞의 책, 237쪽.

40)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1』, 이유, 2007, 32쪽.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한국인의 욕구에 맞는 치료나 시설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1976년 6월 4일, 정광현 기록)⁴¹⁾

‘한국인’을 정신분석의 주체로 두고 있기에 그가 스승인 고사와와 마루이, 그리고 나아가 프로이트의 이론적 관점과 다소간 분리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메타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석을 로컬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고사와의 이론적 시도와 동형성을 갖는다. 즉 스승이 권위자인 프로이트의 곁에서 일본인에게 맞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구상했던 것과 같이, 제국의 피식민지인이었던 김성희는 고사와에게서 일본인이라는 주체를 버리고 다만 그 태도를 이어받아 정신분석학 이론의 한국화를 꾀했다. 고사와의 로컬화 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체와 기법-기술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정신분석학 이론은 프로이트(고사와)의 것을 수용했지만 그 주체를 달리 설정했다는 점에서 김성희 또한 그러했다. 아울러 그가 번역한 프로이트의 논문 두 편⁴²⁾이 정신분석의 기술에 대한 논문이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태도를 방증한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스승으로부터의 영향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희는 아자세 콤플렉스 이론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 아자세 콤플렉스의 이론적 핵심인 ‘다른 종류의’ 죄의식도 마찬가지로 논한 적이 없다. 고사와가 일본의 모성애를 아자세 콤플렉스로 발전시켰던 일련의 과정을 김성희는 따르지 않았던 셈이다. 김성희와 고사와 이론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그곳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이론적 입장이 분리되기 시작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고사와의 이론⁴³⁾에서 제시되는 자애롭고 아가폐적인 어머니상을 자식

41) 앞의 책, 246쪽.

42) 김성희는 표지에 영문 표준판 12권에서 번역했음을 기재해 두고 있다. 해당 논문은 「분석의에 대한 정신분석 치료상의 주의」*Recommendations to physicians practising psycho-analysis*(1912), 「정신 분석 치료의 길*Lines of advance in psychoanalytic therapy*(1919)이다. 그런데 1970년 9월 21일의 강의기록에는 고사와의 번역본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번역어의 사용이나 문장구성을 볼 때 고사와의 번역본을 주로 삼고 영문판을 참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2』, 이유, 2007, 219쪽.

43) 小此木啓吾, 앞의 책, 23쪽.

의 살의⁴⁴⁾를 용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물론 그 어머니가 완벽하게 자애로운 것은 아니다. 고사와가 예로 든 불교 경전의 이다이케가 보여주듯이 어머니는 자식을 해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현실에서도 이러한 이상적 인간형은 존재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용서를 행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극히 보통의 인간일 수 있지만 자비를 행함으로써 순간 인간의 업의 굴레를 초월한다. 김성희의 어머니상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는 여성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자연법칙에 대한 위반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이상 “모계사회”에 속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자라오기 때문에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고사와의 어머니가 용서를 통해 업의 굴레를 초월했듯, 김성희의 어머니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인간세계를 초월한다. 뿐만 아니라 김성희와 고사와 모두 어머니와 자식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사와의 경우 어머니가 자식의 (생후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이는 그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이윽고 어머니에게 가졌던 (생전의) ‘태생에 대한 원한’을 상호적으로 용서한다. 그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좋은 아이, 좋은 어머니가 된다.”⁴⁵⁾ 김성희도 마찬가지로 자식은 어머니와 상호적으로 정(情)을 주고받음으로써 일체화되며, 이 관계는 이후의 삶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만 아이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며(혹은 알 수 없으며), 이 경우 아이가 뉘우치는지 여부보다는 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해진다. 오코노기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이러한 양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를 “부성원리”라고 논한다. 그는 부성원리의 논리를 “죄는 어디까지나 죄이고, 어떠한 용서도 이를 구해줄 수가 없으며, 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⁴⁶⁾로 요약한다. 하지만 고사와(오코노기)가 말하는

44) 小比木啓吾, 하지현 역, 「아자세 컴플렉스」, 『정신분석』 제10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1999, 45쪽. 참고로 국내에서 제기된 아자세 콤플렉스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병우, 「아자세와 오이디푸스」, 『정신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0을 참조.

45) 小比木啓吾, 『日本人の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29쪽.

46) 앞의 책, 28쪽.

“모성원리”에 따르면, “부모마저도 죽일 수 있는 비정한 아들도 본심으로 돌아간다는 ‘어머니’가 잠재되어 있다.”⁴⁷⁾ 즉 인간 존재의 기저에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상당히 “낙천적”⁴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론과 완전히 상반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와 고사와가 갈리게 되는 지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죄의식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김성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강의하긴 하나 죄의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⁴⁹⁾ 뿐만 아니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할 때 흔히 인용되는 ‘토템과 타부’의 상상적 아버지의 살인과 같은 요소들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김성희에게 있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스스로 능력이 발휘될수록 부모로부터 이탈되지만 정신 면에서는 깊이가 쌓이게 된다. (중략) 자기의 정신 내부에서 superego(초자아)와 교섭한다”⁵⁰⁾는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면 이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강의에서 전 오이디푸스 시기(Pre-oedipal Phase)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고사와와의 유사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사와의 종교적인 면을 걷어내고 본다면 김성희가 논하는 ‘정’을 중시하는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사와와 김성희의 이론적 입장 차와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많은 장면에서 고사와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편, 김성희 나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연하겠지만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주체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지역, 언어,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등에 둘러싸여 있기에 이론적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영미권과 프랑스(라캉)의 정신분석학 조류가 흘러오게 되고, 특히 정신의학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일본식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계승은 일정 정도 단절되게 된다.

47) 앞의 책, 25쪽.

48) 앞의 책, 29쪽.

49) 김성희 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1』, 이유, 2007, 304~307쪽.

50) 앞의 책, 306쪽.

이를 다음의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IV. 동아시아 정신분석의 흐름과 단절

정신분석학은 물질이 아니며 또한 수식화된 개념도 아니다. 그렇기에 학문 자체에 일종의 유동성이 전제되어 있어 수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론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프로이트 사후에 신프로이트 학파나 클라인 학파, 라캉주의 등으로 이론적 관점이 분화된 것에서도 이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이론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원래의 이론에 부각되지 않은 지점을 포착하여 발전시키기도 했다. 또는 원래의 이론을 다른 맥락으로 정치시키고 그로부터 이탈을 꾀했다. 오히려 프로이트가 남긴 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이들이 좋게 말해 ‘고전적 정신분석학’, 나쁘게 말해 ‘시대착오적’이라 불렸던 것을 보면,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기본이고 불변이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수용의 과정에서 변화가 동반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론을 말하고 실천하는 당대적 주체가 원래 이론에서 상정했던 주체와는 다른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다른 기준이 공유되는 등 유무형의 변화가 일어난 이상, 당대적 주체들의 세계관은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론의 유동성은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론이 완성된 이후뿐만 아니라 이론이 정립되어 나가던 동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페렌치나 융, 아들러, 랑크 등 프로이트 동시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수용 과정에서 이론의 탈구, 재정립, 부정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론의 수용양상이 변화할 수 있음은 이론의 수용과 계승을 추적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또한 수많은 가정을 생성하여 상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

몇 가지 가능성은 고려해 보자면 이론 수용의 변화 양상은 대략 전환

과 단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전환이라 함은 이론의 결이 달라지는 것, 단절은 이론의 흐름이 완전히 절단되는 것을 의미한다.⁵¹⁾ 하나의 이론이 일순간 완전히 그 수명을 잃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이론의 중심체계가 부정되어 잠정적으로 거론되지 않게 되거나 잊혀지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 사례가 없지 않다. 가까이로 눈길을 돌려보자면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김성희의 이론체계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국 최초의 정신분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논의도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언급되더라도 인물에 대한 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회고가 종종 기억을 윤색하거나 긍정적인 추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볼 때 회고의 한계는 명백하다. 게다가 이를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품이나 지도력, 성향과 같이 개인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그의 통시적 맥락을 읽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그에 대한 논의는 인물이라는 장벽을 뚫지 못했으며 핵심 사상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스승인 고사와 헤이사쿠와의 이론적 유사성을 통해 김성희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고 절단되어 있던 이론에 연장선을 긋고자 하였다. 물론 김성희의 맥락만을 되짚어가는 것은 기준의 회고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고사와와 김성희가 어떠한 이론적 흐름 안에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그것은 동아시아에 들어온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지식장을 형성했는가, 그리고 이 지식장 내에서 이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이라는 관문을 통해 들어온 정신분석학은 적지 않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으며, 그 추종자들은 유럽의 조류를 따라잡으려 노력하면서도 나름의 길을 모색하였다. 서양 제국의 학문을 받아들이면서도 그와는 다른 길을 감으로써 서양 제국과 어깨를 동등하게 하고자 했던 일본의 사정이 학문 외부적 요인이라고 한

51) 물론 하나의 현상을 이처럼 완벽하게 분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면마다의 차이가 있어 하나의 사례를 하나의 수용 양상에 일률적으로 대입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의 가능성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에 시야를 고정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면, 다른 문자체계와 언어적 전통, 가족의 위계, 종교적 차이는 정신분석학의 일본화를 추동한 내부적 요인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양의 정신분석학이 일본의 정신분석학으로 거듭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김성희에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신분석학이 만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따라 달리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면, 일본화뿐만 아니라 한국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상한 결론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 옳든 틀리든, 김성희는 이를 충실히 실천으로 옮겼고 나름의 이론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스승이 말했던 것들을 곧이곧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논지는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각론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틀거나 다른 방법론을 택하기도 했다. 바로 이 지점이 동아시아 정신분석학 수용사에서 김성희라는 인물에 의해 형성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은 김성희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신분석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정신분석 번역어에서, 그리고 현재도 시판되고 있는 번역서(중역서)의 원본으로, 혹은 정신분석학 이론을 소개하는 수많은 일본발 개설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정신분석학으로부터의 영향은 현재 세간의 뇌리에서 잊혀진 것처럼, 혹은 애초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는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 억압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이라는 표상이 정신분석학의 분야에서 억압되었다면 그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그리 된 것일까.

앞서 영미권 정신분석학 조류가 한국에서 헤게모니를 잡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논한 바 있다. 영미권에서 유학을 했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들이 귀국하고 해방 전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정신)의학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화’된 학문적 경향이 점차 잣아들었다. 영미권 정신분석학의 주체가 초국적적이고 보편적이라 상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전제로 한 일본식 정신분석학은 속류 정신분석학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

다분하다.⁵²⁾ 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 힘을 잃은 현재, 인문화된 정신분석학이 라캉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초국적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역성에 기반한 정신분석학은 그 진위를 의심받기도 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성에는 당연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동시에 일본이라는 매개도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크레펠린 등의 독일식 정신의학이 주류였는데⁵³⁾, 정신분석학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론 수용의 매개 역할을 했다.⁵⁴⁾ 그것이 해방 후에는 일본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서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매개 역할을 했음을 밝히는 것은 책 판매에서나 이론의 신빙성에서나 감점 요인이었다. 반일감정으로 인해 일본어판을 저본으로 삼는 것, 나아가 일본이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적으로 여겨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개로서의 일본은 더 이상 학문의 유통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으며 한동안 그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적지 않은 프로이트 저서들이 일본어 중역임을 숨기거나 원본을 영미권 출판본으로 기재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⁵⁵⁾와 같이, 일본화된 학문임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반일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배웠던 일본화된 학문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은, 일본 표상에 대한 그 자신의 양가성을 드러낸은 물론 기술과 정신을 분리했던 고사와의 태도가 김성희에게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김성희와 고사와 간에 정신분석학의 기술과 분석주체의 정신이 분리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당대 정신분석학의 변방이었던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특이한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조차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

52) 이병우, 「아자세와 오이디푸스」, 『정신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0, 313~314쪽.

53) 민성길 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대 정신의학자들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55권 제3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151쪽.

54) 정원용 외,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2) – 일제 강점기의 정신의학 교육(1910~1945)」, 『의사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6, 180~182쪽.

55) 이정민, 「프로이트 저작의 초기 한국어 번역 연구 – 백상창의 『성욕론』과 이용호의 『선집』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5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게 논의한 적이 없었고⁵⁶⁾ 이후의 많은 정신분석가들 또한 정신분석학을 초국가적이고 초언어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미권으로 유학한 다수의 정신의학자들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고사와-김성희에게 있어 이는 정신분석학을 정초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던 문제였다. 이론이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이 아닌 이상, 이론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지금-여기의 자신을 그곳에 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고 나서야 이론이 사변의 틀을 깨고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사와와 김성희의 판단은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 내적으로는 분명 이단적인 것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론과 실천 간의 문제를 엄밀하게 따져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기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유럽과 일본, 미국이라는 제국의 자장 안에서 유통되던 것이며, 제국의 질서에 영합하는 편이 이론을 자기화하는 것보다 문제를 덜 일으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에 대립각을 세우고 나름대로 주체를 정초하려 했음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V. 결론

김성희와 고사와의 이론적 관계, 그리고 그 후의 경과는 그 자체로 동아시아 정신분석학사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식장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으로부터 전파된 정신분석학은 일본이라는 제국을 거치면서 변화하였으며, 다시 한국에 수용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후에 단절에 이르렀다. 이 흐름은 서양의 정신분석학 흐름과 교차되

56) 동양과 동양언어에 대한 프로이트의 무지는 국제정신분석운동 초기부터 잡재되어 온 문제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Blowers, Geoffrey H., "Freud's China Connec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4(4), 1993, pp.263~273.

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어머니에 대한 강조, 일본인(한국인)으로서의 주체, 기술과 주체의 분리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보았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양의 정신분석학 흐름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의 보편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인류의 시원(始原)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인에게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대적이며 유럽 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토템과 타부』 같은 저작에서 나타난 그의 관점은 내재적이기보다는 외부적이었고, 논의를 위해 지표가 되었던 참고서적들 또한 그러했다.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나 『일상생활의 정신분석』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룬 바 있지만, 대부분이 라틴-게르만 계열의 유럽 언어들이었다는 점에서 비-유럽 언어권에서의 정신분석학의 가능성은 심도있게 고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실제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석학이 동양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이론을 보다 첨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사와와 김성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고사와-김성희로 이어지는 지식의 흐름은 그 자체가 동아시아 정신분석학 역사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국에서 지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제국의 자장 안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그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가를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지식의 물꼬를 틀어놓는데 대한 정당화가 포함된다. 현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그들이 시도한 정당화는 상당히 허구적이며 때로는 정신분석학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고사와는 정신분석학의 보편적 주체를 일본인이라는 내셔널리즘의 주체로 치환함으로써 보편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민족이라는 상상적 대상으로 희귀해 버렸다. 김성희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김성희는 정(精)과 같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한국인의 근원이라 논함으로써 논의를 불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특이성을 동물

과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언어를 전제로 하는 정신분석의 방법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그가 제창한 이론에 대한 심화 탐구가 계속되었다면 보완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 자체가 이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주체에 대한 고사와 김성희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된다. 이론이 근저부터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주체는 꾸준히 이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나감과 동시에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론에 외부적 요소가 끊임없이 개입해 들어가는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은 필수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론의 자기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고사와와 김성희가 봉착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동시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을 되짚어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이론의 현재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보편적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프로이트가 밀했던 바로 그 “환상Illusion”⁵⁷⁾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개별적인 인간은 모두 다른 존재이며, 오직 외부에서 부여되는 호칭을 통해서만 동일성의 심급에 위치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경우 보편적 심급이란 무의식-의식이라는 정신적 층위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것, 이를테면 전의식(혹은 초자아)마저도 주변적 요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으며 지역이나 개인마다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에 보편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구조화라는 방법을 통해 이를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추상화된 구조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그 또한 완벽하지는 못하다. 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간 생각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서양 문명권에서 생성된 프로이트의 세계상 안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양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고사와와 김성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고, 그를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심급에서의 일반성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한편 바로 그

57) Sigmund Freud, *Die Zukunft einer Illusion*, In: GW: XIV, p.353.

한국어 번역은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12, 198~199쪽.

지점에서 그들은 다시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상상과 상징이라는 라캉적 구분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들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이덴티티에 개별적인 인간을 동일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와의 대화 1-2』, 이유, 2007.
-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강의노트 1-3』, 이유, 2007.
- 김성희교수 기념사업회, 『김성희 교수의 생애와 사상』, 이유, 2007.
- 민성길 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대 정신의학자들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55권 제3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 이무석, 「金性熙 教授의生涯와思想」, 『정신분석』 제17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6.
- 이병욱, 「아자세와 오이디푸스」, 『정신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0.
- 이병욱, 「프로이트의 對象關係와 對人關係」, 『정신분석』 제18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07.
- 이정민, 「프로이트 저작의 초기 한국어 번역 연구 –백상창의 『성욕론』과 이용호의 『선집』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5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정원용 외,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2) – 일제 강점기의 정신의학 교육(1910–1945)」, 『의사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6.
- Sigmund Freud, 김정일 역, 『성욕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12.
-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 Sigmund Freud, 이윤기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12.
- Sigmund Freud,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14.
- 기타야마 오사무, 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 역, 『의사들의 편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태학사, 2010.
- 小比木啓吾, 하지현 역, 「아자세 콤플렉스」, 『정신분석』 제10권 제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1999.
- 小比木啓吾, 『日本人の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中央公論新社, 1982.
- 中野明徳, 「日本における黎明期の精神分析 —大槻憲二と古澤平作の貢献—」, 『福島大學總合教育研究センター紀要』, 2015.

- 平山朝治, 「母性社會論の脱構築」,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紀要』, 2002.
- 大宮司信・森口眞衣, 「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という名称に關する一考察」, 『東北帝國大學一覽』, 東北帝國大學, 1944.
- 岡田靖雄, 「戰前合州國に留學した精神病學者たち (下)」, 『日本医史學雜誌』第40卷 第4号, 1994.
- 古澤平作, 『精神分析の理解のために』, 日吉病院精神分析學究室出版部, 1958.
- 古澤平作, 「罪惡意識の二種」, 『阿闍世コンプレックス』, 創元社, 2001.
- Harding, Christopher., "Japanese psychoanalysis and Buddhism: the making of a relationship", History of Psychiatry. 25(2), 2014.
- Okonogi, Keigo., *Japanese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The Japan Psychoanalytic Society, 2004.
-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chronologisch geordnet*. Imago Publishing, 1952.

<Abstract>

The Influence of Japan on Early Acceptance of Psychoanalysis in Korea: Based on the theoretical similarities between Kim Sung-hee and Kosawa Heisaku

Lee, Jung-min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flow of acceptance of psychoanalysis in East Asia by discussing theoretical similarities between Korea's first psychoanalyst Kim Sung-hee and his mentor, Kosawa Heisaku. Kim Sung-hee, a medical student born in the colonial period of Korea, decided to study psychoanalysis. After the graduation, he began to study psychoanalysis at the Tohoku Imperial University in Japan, the center of east asia's psychoanalytic scene, under guidance of Marui Kiyoyasu and Kosawa Heisaku. As a psychiatrist, Marui taught Kim Sung-hee psychoanalysis as clinical medicine, and Kosawa was Kim's theoretical mentor. Especially, Kosawa developed and Asian-specific psychoanalysis theory called 'Ajase complex'. Unlike paternal authority of Oedipus complex, Ajase complex is centered on the concept mother's love and forgiveness. This theory later appears in a modified form from his disciple, Kim Sung-hee. Although these attempts are not well studied in Korea today, but this theoretical break can be called a historical cross-section of East Asia's acceptance of psychoanalysis.

Key words : Kim Sung-hee, Kosawa Heisaku, History Psychoanalysis, Reception of Psychoanalysis in East Asia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03063)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504A

전자우편: whsdid@skku.edu

이 논문은 2019년 3월 12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